

Dear Beloved Partners,

Thank you for your love & support on our behalf. Thank you for giving up meals, coffee, trips, and so much more for the sake of the gospel. Elizabeth Elliot said, "You can never lose what you have offered to Christ." What a comforting thought! No matter how big or small, no matter how painful or great the loss, given to Jesus, He will use it and it will not be lost! PTL!

Aquila has been going weekly to the O.D. Rehab Center to preach to the men there. The Lord is blessing His Word through Aquila's preaching and filling all with His grace. The men are overwhelmed with joy because Aquila has been taking weekly treats. (just like little boys, they are so happy to get treats) Also, this Lord's Day Aquila preached at a small church we have been supporting because the pastor went to visit family in Korea. Please continue to lift up our house church of 5 members after Silas & Josiah leave. We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Lord allows. Also lift up Aquila and his preaching as well as his health.

Prisca had 3 middle school students graduate 8th grade in June and will be going to high school. It was sad to see the boys leave but a blessing to hear what 2 boys said during a presentation at graduation. "I learned that God is more concerned about His glory than my comfort and this gives me encouragement knowing that even if all of my prayers are not answered, it's o.k. because God's glory is more important than me being comfortable." It was amazing to hear these words from baby Christians who were saved out of the clutches of idolatry and ancestor worship. "Out of the mouth of babes has He ordained praise!"

Summer vacation is coming to an end and Prisca will be starting school at the beginning of August and start teacher prep at the end of July. (She will be teaching 3-5th grade this school year.) Please pray for the new students and MKs that will be in Prisca's new class. Also, please lift up her safety as she will be commuting over 180km round trip.

We are so thankful for God's goodness to us. Immanuel is still working at a group home in Chicago. Silas will be a sophomore at Wheaton and Josiah will be a freshman at LeTourneau University in Texas this fall. Josiah will be attending a good Christian engineering school. Last but not least, Simeon will be a high school student.

We thank the LORD for watching over our boys throughout the years. Even with our meager homeschooling efforts, all the boys managed to get scholarships, grants, & loans to help pay for their college education. We are reminded again of Psalm 84:11 "For the Lord God is a sun & shield: the Lord bestows favor & honor; no good thing does he withhold from those whose walk is blameless." Because of Jesus and His sacrifice on the cross, we are considered blameless! PTL!

Falling more in love with Jesus,

Aquila, Prisca, & 4 boys 7/25/ 2022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희를 위한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식사, 커피, 여행 등을 안하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바친 것을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크든 작든, 고통스럽든 크든, 예수님께 드린 희생은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아굴라는 매주 O.D.재활 센터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의 설교와 주님의 은혜로 통해 주님은 형제들에게 말씀의 축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굴라가 매주 작은 간식을 줌으로 형제들은 기뻐합니다. (어린소년들처럼 간식을 받고 기뻐함) 또한 이번 주일에 아굴라는 저희가 돕고 있는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서 대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두아이들이 떠나 5명이된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아굴라의 말씀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리스길라의 반에 있는 3명의 중학생이 6월에 8학년을 졸업했고 8월에 고등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남학생들이 떠나 슬펐지만 졸업 발표회에서 두 남학생이 한 말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함보다 그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조상숭배의 영향에서 구원받은 아이들에게 나온 고백이 놀라웠습니다. "어린 아이와 젓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여름 방학후에 브리길스라는 8월초에 학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7월말에 교사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 학년도에 3-5학년을 가르칠 예정) 브리스길라의 새 학생들과 MK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의 왕복 180km 출퇴근길의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함이는 시카고의 그룹홈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주영이는 Wheaton대학에서 2학년이 되고 주성이는 올 가을 텍사스에 있는 LeTourneau 대학에서 1학년이 됩니다. 그 대학은 좋은 기독교 공과 대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는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 동안 저희 아이들을 지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홈스쿨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장학금, 보조금 및 대출을 받아 대학등록금을 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편 84:11을 다시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고 정직한자로 여겨집니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함영성민 2022년 7월 25일